

1930년 3월 28일 4면1단

## 懷疑主義 批判(十一)

-思想과 生活의 方法論-

裴相河

### (四) 近代 懷疑主義

近代 懷疑家들을 紹介하기 前에 데카-트[데카르트](1295-1650)의 懷疑論의 方法論을 알어둘 必要가 있다. 그는 徹底한 意味에서 懷疑主義者라 할 수 업지마는 그의 全 觀念論的 體系가 懷疑의 根本에서 出發하여 잇는 까닭이며 또는 近代 懷疑家의 大部分이 그의 哲學과 密接한 關係를 맺고잇는 까닭이다. 데카-트에 依할 것 가트면 吾人은 모-든 것을 疑心할 수 잇스며 또한 疑心하지 안흐면 아니 된다고 한다. 事物의 現象은 언제든지 不安定한 것이니까 現象 밖에 아모것도 認識할 수 업는 吾人의 知覺은 □□할 만한 認識能力이라할 수 업는 것이며 이 보담 더욱 □□한 認識能力이라고 생각하는 吾人의 理性도 또한 或은 심술□인 □□의 訴作인지도 알 수 업는 까닭이다. 그럼으로 그는 모-든 哲學을 哲學하기 前에 모름 즉 이모-든 것을 疑心하라고 불으짓고 있다. 그러나 이곳서 注意할 바는 그가 疑心하자 함은 決코 疑心 그것만을 爲한 疑心이 아니엇섯고 疑心하고 疑心한 結果 아무리 疑心할려 하야도 疑心할 수 업는 根本的 存在를 發見하러 함이다. 그리고 그가 發見한 바 疑心할 수 업는 存在를 그는 『우리가 疑心하고 잇다』는 心的 態度라고 하였다.

우리가 疑心하고 잇는 心的 態度 卽 『생각하고 잇다』는 事實만은 모-든 懷疑를 超越한 『明白』 또는 『判然』한 根源的 事實이라할 수 잇다. 여기서 그의 有名한 原理 『나는 생각한다. 그럼으로 나는 잇다』가 生겨 낳다. 이는 그의 全哲學體系를 支配하는 根本原理이다. 그럼으로 데카-트는 懷疑主義에만 머물르지 안엇다. 그러나 그의 全 哲學體系를 支配하는 根本原理는 그의 懷疑論的 方法으로써 獲得한 바이다. 그는 懷疑主義者가 안이다. 그러나 그의 哲學은 懷疑論의 子孫이라할 수 잇다.

X

以上과 가티 데카-트 懷疑論은 □□한 意味에 잇서서의 學的 哲學을 建設

하려는 前提手段에 지나지 안었다. 이와 가티 近代 懷疑家의 大部分도 데카-트 哲學□□ 아래 懷疑로써 手段삼어 그네들이 뜻하는 바 어저한 目的을 達成하자 였다. 그러나 그네들이 뜻한 바 懷疑□의 目的은 『데카-트』의 뜻한 바 學的 哲學이 안이 였섯고 神秘說과 結合한 宗教的 信仰 또는 宗教的 眞理를 確立하자 함에 잇섯다. 그럼으로 『데카-트』哲學의 □□ 아래서 자라난 近代 懷疑家의 大部分은 懷疑로써의 目的이 다르다는 點에 잇서서 『데카-트』와 □□하고 있다.

『부라이즈·파스칼』(1623-1662)

그를 懷疑主義者라 하기보담 神秘主義者라 함이 合當할 것 갓다. 當代의 懷疑家들이 大部分 神秘論과 巧妙히 結合하여 잇슴은 먼저 論述한 바와 갓 거니와 그 中에도 『파스칼』의 立說에는 懷疑主義보담도 神秘論의 色彩가 더욱 濃厚한 까답이다. 그는 吾人으로써 가장 正確한 知識이라할 수 잇슴은 數學 박계는 업다고 하였다. 그것치만은 數學은 事物의 全體를 把握할 수 업슴으로 全體性을 把握할 수 업는 以上 잘아서 그의 眞實한 部分도 또한 解得할 수 업스리라고 한다. 그럼으로 簡單하게 말하자면 吾人이 가장 正確하다고 밋는 數學的 知識도 또한 事物의 核心에는 相關치 못하는 것이니깐 吾人의 理性으로써 建設한 바 哲學的 立論은 結局 懷疑論에 싸지지 안홀 수 업스리라는 主張이다. 그리고 그는 宗教的 信仰에서 求하자 한다. 理性으로써 생각한 바 原理 또는 道德的 觀念 其他 모-든 人世的 眞理는 그럼으로 理性的 所產고 아니요, 오로지 吾人의 『心情으로써 甞기는 수 밋게 업다』라는 根本的 認識能力에서 生겨남이라고 한다. 感情과 信仰 쏘이 吾人의 認識을 眞正하게 □□할 수 잇슴이라고 밋고 있다.

그럼으로 『파스칼』의 懷疑論은 神秘的 宗教說의 □□이다.

『저세프·그란빌(1636-1680)』

그란빌은 因果關係(모-든 學的學問의 基礎的 原理의 하나인)를 疑心했다. 이 點에 잇서서 最大의 懷疑主義者인 흙의 □□이라고할 수 있다. 吾人이 經驗하는 바는 한 個의 事項이 한 個의 事項 뒤(後)에 生起한다는 單純한 事實的 現象에 지나지 안는다. 한 個의 事項이 한 個의 事項으로 말미암아 必然的으로 生起치 안흐면 안이 된다함은 吾人의 妄想이 任意로 作成한 바 因果關係에 지나지 안는다. 그것은 한 개의 推測이지 確實한 證明은 안이라고할 수 있다. 그럼으로 因果關係의 必然性을 疑心하지 안홀 수 업다고 한다. 그러나 그란빌의 懷疑論도 懷疑論에만 머물르지 안코 科學的 眞理에 對한 懷疑의 □□으로 나아가 宗教的 信仰에 安居를 였지 안흐면 안이 되리라는 前提的 手段에 利用뻬슬 짜름이다.

『페-루·포아레』

『포아레』는 吾人의 知識을 自動的인 것과 所動的인 것으로 兩分한다. 自動的 知識이라 함은 數學 또는 其他의 科學에 잇서서 어셔한 觀念을 생각할 수 잇슴으로써 얻은 知識이니 元體觀念이란 것이 밋서 事物의 眞相이라할 수 업는 짜답에 自動的 知識이라할 수 업는 짜답에 自動的 知識으로써는 事物의 그림자만을 僞造할 다름이지 그의 眞理는 永遠히 把握할 수 업다고 한다. 그럼으로 所動的 知識- 卽 吾人의 五宮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바 宇宙의 暗示 神의 啓示로 얻은 知識만을 가장 참된 知識이라할 수 잇다. 吾人이 가장 □□하게 알 수 잇는 知識 다시 말하자면 吾人의 知識을 確實히 保證할 수 잇슴은 神 또는 神에 關한 知識 밖에 아모것도 업다.

懷疑는 『포아레』에 잇서서도 『파스칼』·『그란비』에 잇서서의 똑 가튼 □□을 맞고 잇다.

다녜엘·유애(1530-1721)의 懷疑論도 吾人의 認識能力은 밋을 수 업는 것이니 天啓的 所動的 知識만을 밋라드는 宗教的 立說에 對한 前提的 方法論에 지나지 안는다.